

# 새싹편지 5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4년 5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향기로웠던 길, 상수 허브랜드를 다녀와서



<1-1> 허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2> 허브랜드를 관람하는 모습이다.

5월 7일 수요일에 2, 3학년 학생들은 봄의 향기가 가득한 상수 허브랜드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 현장 학습은 MT를 대체하여 다양한 허브에 관련된 상식을 알아가고 2, 3학년 학생들의 돈독한 선·후배 관계와 화합을 추진하고자 주최된 행사였다. 이날 방문하였던 상수 허브랜드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에 위치한 최 규모의 허브랜드로써, 2만 5천여 평의 부지와 3,000평의 유리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야외정원에서는 자생하는 야생화들과 라벤더, 박하, 페리 왕클 등의 중부지방에서 월동 가능한 허브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유리온실 내에서는 1,0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허브를 감상해볼 수 있었다. 상수 허브랜드에 도착한 후 학생들을 위해 관계자분께서 허브에 관한 소개를 해주셨고, 허브는 88올림픽 이후에 많이 유입되어 잘 알려지게 되었다.' 라는 우리나라 허브의 기원과 '허브를 키우는 방법' 과 같은 허브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도 설명해 주셨다. 그 후 학생들은 관계자분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들으며 상수 허브랜드를 둘러보았다. 5시 4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향초 만들기 체험을 하였고 7시 반까지 '허브의 성'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천연 꽃을 이용한 '꽃밥' 을 먹으며 독특한 저녁 시간을 가졌으며 그 이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다양한 허브의 특징 찾기' 를 위해 열심히 관찰하면서 학생들 모두 허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 성년의 날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다. 작년부터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바뀌었다. 만 20세가 아닌 만 19세를, 그리고 해당년도 안에 성년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성년의 날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법이 바뀌므로써, 우송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성년이 되는 재학생들의 수만큼 성년의 날 선물의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94년생만 챙겨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공지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제 4대 학생회는 성년임

에도 불구하고 축하 받지 못 하는 95년생 재학생들을 위해 장미꽃을 나눠주었으며, 94년생과 95년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번외이벤트를 열어 추천을 통하여 2명에게 향수를 전달하였다. 장미꽃을 받은 재학생들은 SNS에 글을 남기기도 하고, 학생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학생회는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편의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유치원 공연 소감

#### 음악동아리u-song ‘우쿨렐레 연주’



5월 2일에 우리 u-song 동아리는 우송유치원으로 우쿨렐레 공연을 다녀왔다. 선배님들의 배려 아래 아직 현장 경험이 없는 1학년들은 모두 공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연습시간이 촉박해서 수업이 끝난 후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했다. 처음에 연습할 때는 생각만큼 손이 잘 따라주질 않아서 자신이 없었는데 선배님들과 친구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서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다. 우쿨렐레 공연을 하기 전, 유아교육과 학생이 된 후 처음으로 유아들과 마주하는 것이라 많이 떨렸다. 부족한 실력 탓에 걱정

이 많았는데, 막상 유아들 앞에 서니 걱정보다는 즐거움과 설렘이 앞섰다. 유아들이 우쿨렐레에 맞춰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까지 즐겁고 뿌듯했다.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완벽한 공연을 선사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연습해서 한 번 더 공연하고 싶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비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고, 잊지 못할 뜻깊은 경험이었다.

#### 유아문학연구회 ‘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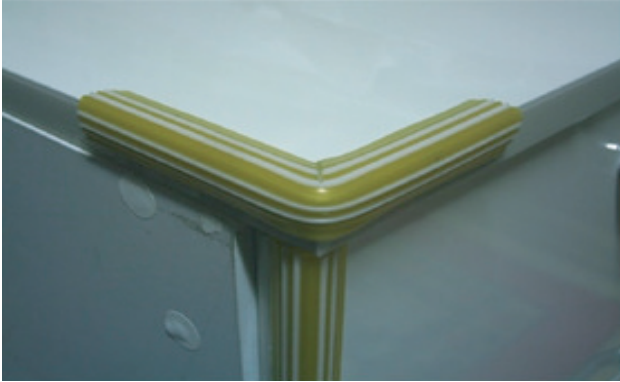
저희 동아리는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저희 대학교 부속유치원인 우송유치원 유아들에게 인형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형극을 위해 남아서 연습해야 하는 상황 이었지만 처음 해보는 인형극에 들뜨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대본을 주시고 저희가 해야 하는 인형극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녹음된 음성에 맞춰 손동작, 몸동작 등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유아들에게 저희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됐기에 좁은 무대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인형을 들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형극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릴 적 보던 덩동땡 유치원에 똑딱이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당시 똑딱이를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했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니 저희가 준비한 인형극을 보는 우송유치원 유아들도 신기하고 흥미로워 하

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아들이 인형극을 보고 지금 이 인형극이 나중에 커서 생각했을 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길 바라며 연습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인형극 당일 혹시나 실수하진 않을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총 2번 인형극을 하기로 되어있었고, 2번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인형극이 끝나고 유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형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유아들의 눈빛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유치원에서 인형극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참여하여 유아들에게 즐거운 인형극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동안은 힘 들었지만 인형극이 끝난 후에 느끼는 보람과 뿌듯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지혜나눔

## 유치원 안전한 환경구성

유치원 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는 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주는 것입니다.



### A. 모서리 보호대

유치원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모서리가 둥글지만, 책꽂이와 같이 유아들이 부딪친다면 위험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선택활동과 같은 경우, 각 영역에서 유아가 놀이를 하다가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한 순간에 넘어지거나 모서리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모서리 보호대를 붙이면 부딪침 등으로 유아가 크게 다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B. 미끄럼 방지 스티커

유아들이 뛰다가 혹은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치원 곳곳에 미끄럼 방지를 깔아둠으로써 유아들이 넘어져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복도나 화장실과 같은 경우는 유아가 이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실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화장실까지 미끄럼 방지스티커를 이용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C. 문끼임 방지 장치

유아 또는 교사가 문을 닫을 때 유아의 신체 일부가 문 사이에 끼여 다치는 끼임 사고도 유치원 안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실제로도 사례가 있듯이 손가락 절단과 같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빈 공간에 문 끼임 방지장치를 달아준다면 유아가 문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여 일어나는 사고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 D. 안전문

유아들이 계단과 같이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져 생기는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3층으로 구성된 유치원이 많으며 교사들도 이를 주의하여 유아들과 함께 규칙을 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단 앞에 안전 문을 설치해 유아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우송유치원 소식

## 어린이 날 행사



<4-1> 유아들이 작은 마당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5월 2일, 어린이날 행사로 오전에는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오후에는 우송대학교 음악동아리연구회에서 유아에게 익숙한 동요를 우쿨렐레로 연주하였고 인형극동아리에서 동극을 준비해서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꿈꾸는 방에 불꽃장을 마련하여 유아가 마음껏 몸을 던지고 놀 수 있도록 준비하고, 1층 베란다에서는 비눗방울 불기가 한창이었다. 유아가 준비된 놀이 코스를 완주하고 나면 작은 마당에서 주스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 고구마 모종심기



<4-2> 유아들이 모종에게 물을 주고 있다.

5월 14일에는 3세, 4세, 5세 모두 야외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주제는 고구마 모종 심기였으며 미술 영역에 준비된 재료들도 모종 심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다. 3세 아람, 다솜반에서는 텃밭의 고구마 모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돌에 노랑 빨강 파랑으로 칠하는 미술 활동을 했고, 4세 누리반, 슬기반에서는 모종에 물을 뿌릴 수 있는 물 조리개를 꾸미는 활동을 했다. 이날은 간식도 야외에서 먹고, 큰 마당과 작은 마당 모두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 아버지 참여수업

5월 24일은 우송유치원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하고 아빠와 아이가 즐겁게 놀이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아버지 참여수업을 진행하였다. 3세는 신체적인 놀이로 아버지와 함께 동화도 듣고, 아빠 얼굴에 머리 꾸미기 같은 미술 활동을 했고, 4세는 화분에 꽃을 심어서 가꾸고 풋말을 만들어 장식하여 아빠에게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했다. 미술 활동으로는 아빠와 함께 엄마에게 선물할 목걸이와 팔찌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꿈꾸는 방 앞에는 간단한 수 조작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가 딸이 되어보고 아빠가 돌림판을 돌리는 등 신체 놀이를 진행했다. 5세는 아빠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책을 만들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빠와 함께 요리활동도 했는데, 같은 재료로 요리 방법을 자유롭게 하여 만든 음식을 시식해보았다.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지윤 박명옥 김유리

김예슬 손혜원 박지원

김수민 김지송

김지예 강현아

